



보 도 자 료

2015년 7월 29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 열 과 장(☎2110-1520)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황지은 사무관(☎2110-1523)

방통위, 위치정보산업 사업자와 간담회 개최

-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애로사항 수렴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등 현안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은 7.29일(수) SKT, KT, LGU+ 등 이통3사, 네이버, 다음, 휴빌론 등 위치정보산업 관련 사업자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용자와 사물의 위치정보는 현재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의 유망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다만 그간 이러한 위치정보가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만 강조되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논의되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며, 방통위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산업 활성화와 동시에 국민의 위치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정보산업 업계에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 위치정보산업 사업자들은 국내 위치정보산업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체가 많은 국내 위치정보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향후 ‘위치정보 산업 및 이용 활성화 계획’ 마련시 활용할 예정이다.
끝.

<참고사항> 간담회 참석자

- 허일규 SKT 본부장, 김학준 KT 상무, 강학주 LGU+ 상무, 이준호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이재용 휴빌론 대표, 임홍진 블루칩씨엔에스 대표, 양철용 디티씨 대표, 안병익 씨온 대표, 김형식 나우드림 사장